

호남불교계, 청소년 계도 발벗고 나섰다

광주소년원 여름불교학교 · 비행청소년 템플스테이 다채

호남불교계가 청소년 탈선을 막기 위한 특별한 여름 프로그램을 펼쳤다.

고령정보고등학교(광주소년원) 불교관은 8월 7-8일 1박 2일 일정으로 2013년 여름불교학교를 개최했다.

이날 여름불교학교에는 20년 가까이 교정교화 활동을 펼치고 있는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과 여래사(주지 선엽)가 주최하고 포교사와 신도들이 자원봉사로 나섰다. 행사에는 어린 나이에 사회적 범죄를 저지르고 참회의 시간을 갖고 있는 광주 소년원생 30여명이 참여했다.

고령정보고등학교에는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과 매주 수행과 기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여름과 겨울에는 불교수련회를 개최하고 있다. 최근에는 조계종 여래사의 스님과 신도들이 참여해 소년원생들에게 재회의 힘을 보태고 있다.

행사는 이재언 포교사의 사회로 오전 10시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지현 스님의 레크레이션, 명상수행, 불교영화 상영, 불교기초교리, 서승례 포교사의 신행상담, 법문 등이 진행됐다. 행사시간은 소년원생들의 일과시간인 오전 10시부터 17시까지 2일간 진행됐다.

입제식에서 선엽 스님은 법문을 통해 “불교는 자기 자신을 바로 직시하는 것으로, 항상 변화하는 마음을 믿고 행동하지 말고 행동하기에 앞서 현재 일어나는 마음

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이번 불교여름학교를 통해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는 방법을 잘 공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문에 이어 소년원생들은 다짐문을 통해 “이번 불교행사를 통해 자신과 삶의 의미를 새롭게 다지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익히고 배우겠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지난날의 죄업을 뉘우치고 앞으로는 어떠한 범죄의 유혹을 끄달리지 않는 불자가 되게 하옵고, 그리하여 이곳에 배운 정진의 힘으로 자신을 극복하고 진실한 불자가 되기를 서원한다”고 말했다.

입제식에 이어 원생들은 포교사와 여래사에서 마련한 과일과 음료수 등 간식이 제공됐다.

행사를 준비한 광주전남지역단 포교1팀(팀장 서순자)은 행사의 의미에 대해 “인간의 성장기에 있어서 중요한 청소년기를 잠시 방향과 이탈로 고통 속에 지나야 하는 소년원생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여 세상에 대한 바른 견해와 올바른 행동을 깨닫게 하고자 행사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찰에서도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을 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 일환으로 템플스테이 등이 열렸다.

완주 송광사(주지 법진)는 덕진경찰서(서장 신일섭)와 함께 학교폭력 가해학생



고령정보고에서 소년원생들에게 법문하는 여래사 주지 선엽 스님.

들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열었다.

지난 7월부터 3차례에 걸쳐 매회 각 10명씩의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이 참여해 일안 스님의 지도로 심신치유를 위한 기제조, 108 참회, 발우공양, 나만의 염주 만들기 등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참여 학생들은 대부분 호기심과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으나 스님과 함께 차를 마시고 대화를 하며 자신의 분노와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올바른 방법을 배우고 자신들의 지난 행동에 대한 후회와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한 참가학생은 “템플스테이를 한다고 했을 때는 따분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마음을 비우고 108배를 하면서 기도문 구절

마다 가슴에 와 닿았고 스님과 함께 차를 마시며 고민을 털어 놓으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일섭 덕진서장은 “앞으로 비행청소년의 바른인성함양을 위해 학생들의 만족도와 재발방지 효과가 큰 템플스테이와 같은 지역사회 선도프로그램을 연계해 학교폭력 근절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법진 스님은 “전통의 계승도 중요하지만 항상 새로운 것의 개발도 필요하다”며 “지역사회에서 사찰의 역할이 커져야 한국 불교도 발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광사는 나누고 비우고 채우는 일명 나비체 템플스테이를 진행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조동제 전북지사장

여수 흥국사 어린이 영어템플스테이

임진왜란 승군의 주둔지였던 여수 흥국사(주지 명선)는 지난 8월 2일~4일 2박 3일간 ‘Summer Vacation Stay with Monk’라는 주제로 어린이 영어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어린이 5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템플스테이에는 지도법사 스님과 3명의 원어민 교사, 한국인 교사의 지도하에 예불, 숲속 걷기 명상, 율력, 어린이 마음거울 108지 침서, 영어수업, 물놀이, 단청배우기, 부모은중경 공부, 부모님께 영어로 편지쓰기, 문화탐방 등 다양한 영어프로그램과 문화 체험 행사가 진행됐다. 특히 어린이들의 마음가짐을 담은 영어로 된 108배 기도문은 이날 첫 선을 보여 큰 관심을 자아냈다.

행사의 시작은 2일 오후 3시 입제식을 시작으로 반별 소개와 흥국사 탐방을 시작했다. 3개의 반에는 1~2학년 문수반, 3~4학년 보현반, 5~6학년 관음반 나눠 학년별로 담당교사의 인솔로 진행됐다.

행사를 주관한 명선 스님은 인사말에서 “영어 템플스테이를 통해 글러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에게 영어가 자기의 꿈과 목표를 실현하는데 큰 장점으로 부각되길 바라며, 우리 전통문화와 예절 그리고 불교의 참선을 영어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둘째 날에는 어린이들이 사찰의 문화와 놀이를 중심으로 하는 시간으로 예불, 숲속 걷기 명상, 율력, 물놀이, 단청배우기, 부모은중경 그리기가 진행됐다. 마지막 날에는 사찰예절을 체험하는 시간으로 발우공양, 영어 108배, 영어로 배우는 부처님 말씀 등이 진행돼 아이들이 사찰의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치유·소통’ 백양사 청소년 명상캠프

최근 전국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청소년 명상캠프가 장성 백양사에서 개최됐다.

조계종 포교원(포교원장 지현)이 지난 6월부터 전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개최하고 있는 불교명상캠프 ‘청소년 마음등불’이 광주전남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8월 2~4일까지 장성 백양사에서 개최됐다.

광주비로자나명상센터(센터장 정명)가 주최하는 이번 명상캠프에서 한국명상상담학회 전문 강사들은 청소년 스트레스 대처방법과 명상을 통한 치유와 소통방법 등을 전했다.

특히 이번 캠프에는 에니어그램 검사, 성격유형별 특징 이해하기, 안전한 공간 만들기, 바디스캔, 불편한 경험탐색하기, 마음 작동 모델 설명, 명상과 호흡, 오감명상, 수식관, 영성관람, 소통의 대화법, 소감 나누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상태와 감정들을 체험하고 일상에서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소개됐다.

정명 스님은 인사말에서 “명상캠프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격을 성찰하고 이를 명상적 요소로 통해 해결과 실천방안까지 얻어가는 행사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비로자나명상센터는 매일 넷째주 토·일요일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8개월 과정의 명상치유사 3급 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백양사 청소년 명상캠프에는 30여 청소년들이 참가했다.

특정종교 성지화 계획에 ‘불교는 들러리’

전북 불자, 종교관광 활성화 계획 백지화 요구

주요 불교 종단에 세계순례대회 불참 호소

전주시(시장 송하진)가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 종교관광 활성화 계획’에 대해 불교신행단체들이 적극인원 반대 활동에 나섰다. (관련기사 본지 952호, 전주시 종교관광정책, 종교편향 파문)

24개 신행단체로 구성된 ‘특정종교 성지화반대 대책위’(상임대표 김백호 전북 불교신도회장, 이택희 전북불교문화회장, 오종근 전북불교시민연대 공동대표, 이하 대책위)는 8월 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주시의 특정종교 성지화 활성화 계획에 대한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또 금산사, 선운사, 태고종, 천태종 등 주요종단의 사찰과 신도회에 발송된 ‘조계종 지역교구분사 및 지역사부대중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오는 9월 28일 개최예정인 세계순례대회에 불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와함께 대책위는 전북주요 사찰 입구 등 50개소에 ‘특정종교 성지화 반대’ 현수막을 게시하고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대책위는 이날 성명에서 “종교관광이라는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의 종교관광도시화는 한(韓)스타일을 기치로 한식, 한옥, 한지, 한방을 육성하는 전주시의 이미지와 맞지 않고 수천년 전주 역사를 왜곡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또 “6대 종교가 서로 소통하게 한다는 발상은 특정종교 성지화 사업추진을 위한 위장전술이며 특정종교 성지화를 위해 불교, 원불교, 천도교, 유교를 들러리 세웠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와 함께 전라감영의 복원 등 산적해 있는 숙원사업을 제쳐놓고 특정종교를 위해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내년 지자체장 선거를 앞둔 선심

성 예산 편성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표했다. 세계순례대회라는 명칭으로 진행하고 있는 특정종교행사도 즉각 중단할 것도 요구했다.

대책위는 “전북지역은 수많은 민간신앙과 민족종교의 발상지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순례대회는 특정종교의 성지만을 연결해 놓았다”며 “위대한 관광자원은 전문분야에 근간한 역사정신을 찾는 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예로부터 ‘중바위’ ‘승암산(僧巖山)’이란 고유지명대신 특정종교에서 사용하는 ‘치명자산성지’를 지자체 및 국가기관이 사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도시의 도로안팎 표기를 승암산으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주요종단의 사찰 및 신도회에 보낸 호소문을 통해 “전주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화합위원의 세계순례대회에 불교 또한 중차대한 종교화합의 대의를 저버릴 수 없어 동참해오고 있었지만 타종교들은 들러리를 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

한 문제제기 또한 꾸준히 있어 왔다”며 “전주시 종교관광 활성화 계획으로 특정종교의 성지화 계획이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종교화합을 빌미로 타 종단을 들러리 세우 특정종단의 목적달성에 이용하고 있는 세계순례대회에서 불교계는 당장 철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특정종교편향의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종교성지화 계획이 백지화된 후 각 종단이 명실공히 화합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순례길 연구사업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보장될 때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 불교계 지도자들에게는 향후 전주시를 중심으로 한 전북지역의 특정종교편향정책에 대한 수수방관과 눈앞의 작은 이익만을 바라보다 소탐대실한 역사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모든 것이 밝혀진 현시점에 불교계가 계속 참여한다면 세계순례대회 조직 기록에 의해 후대에 전주를 천주교성지로 만드는 데 일조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며 “이제는 현명한 판단과 실천을 해야 할 때다”고 세계순례대회에 불참할 것을 거듭 호소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백제불교도래지·‘불갑사’ 영광 9경에 선정

전남 영광군 ‘9경(景)’ 먹거리 ‘9미(味)’, 살거리 ‘9품(品)’ 발표

백제불교최초도래지 법성포와 불갑사가 영광 9경의 하나로 선정됐다. 영광군(군수 정기호)은 7월 25일 불거리 ‘9경(景)’ 먹거리 ‘9미(味)’, 살거리 ‘9품(品)’을 발표했다. 9경, 9미, 9품은 ‘아름답고 행복한 영광’ 주제로 국민참여 공모와 설문조사를 거쳐 선정됐다.

9경은 백제불교최초도래지 법성포와 불갑사 외에 불갑수변공원, 불갑산상사화, 백수해안도로, 가마미해수욕장, 숲쟁이공원, 천일염전, 송이도가 포함됐다. 먹거리

리 9미는 굴비한정식, 간장게장, 황금보리대지, 보리새우, 덕자점, 황도갯벌장어, 청보리흰우, 보리떡(饅), 백합이 선정됐다. 살거리 9품은 영광굴비, 모시잎송편, 천일염, 대마함터니막걸리, 간척지쌀, 태정딸기, 태양초고추, 찰보리쌀, 설도젓갈 등이다.

영광군은 9경, 9미, 9품을 올해 하반기부터 관광콘텐츠로 만들어 스토리텔링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현대불교신문 · 미안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안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안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안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안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안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안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안마 극빈층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안마연방정부 추대 미안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안마문화원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맑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안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안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안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봉사도 지원 가능합니다.
- 신부 출가의식 지원
신부는 미안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행 행사이며 미안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부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피아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안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서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안마 문화원을 통해 미안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안마문화원 상명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경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